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① 연재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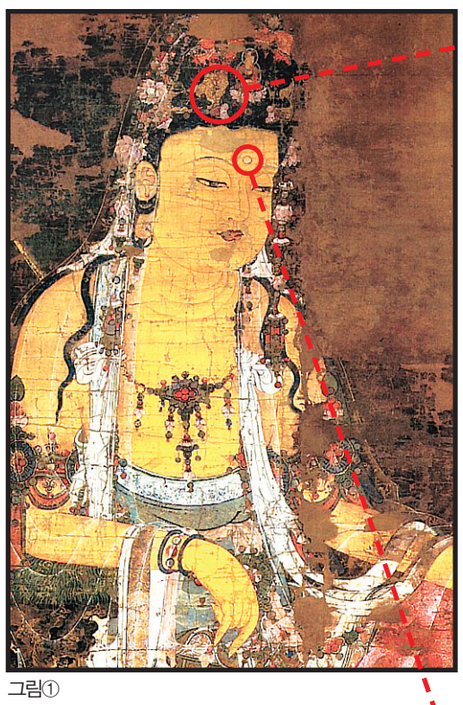
▶ 직접 발로 뛰는 실물 조사, 30년 경력의 베테랑 학자. 불교문화재에 있어 이론과 수행을 접목시킨 명쾌한 해설로 이름 높다. 현재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 문화재청 전문위원 · 성보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 조계종 국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불화 진가, '디테일'에 있다

한국의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세밀한 필치는 너무나도 정밀하여 '신묘(神妙)'의 경지라 극찬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고려불화가 해외에서 이토록 유명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대부분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존 162점의 고려불화 중에 약 98%가 일본을 위시하여 구미에 흩어져 있고, 그 중 한 두 건 정도가 국내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일본 불화 연구의 원로학자 키쿠타케 준이치(菊竹淳一) 교수는, 고려불화를 "아시아에서 최고(最高)"라고 언급했고, 최근에는 '세계제일(世界第一)'이라고 서슴없이 밝힌 바 있다.(2006년 방영 KBS다큐멘터리 〈고려불화〉 중에서) 평생 불화를 연구하신 일본 학자가 그 말년에, 일본 것도 중국 것도 아니고, 고려불화를 세계제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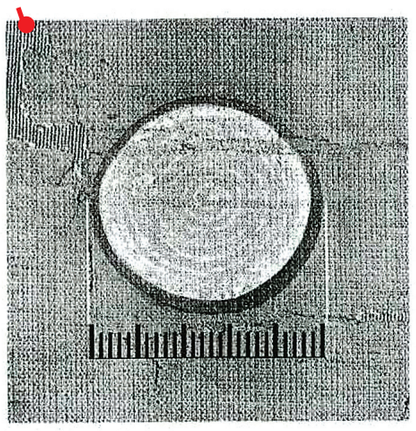
그림①



그림②

고려불화 세부 표현 '진면목'
日전시 관람용 현미경 배포
확인 순간 경이로움에 감탄

초정밀 · 초대형 세계 '상존'
그림 속 수월관음은 한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다



그림③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부분.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그림② 수월관음 보관의 디테일. 금선과 붉은 색 · 파란 색 ·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그것을 덮어 우아함을 더했다.

그림③ 수월관음 백호의 디테일. 백호의 나선 굵기는 내부 0.02mm이고 윤곽선은 0.2mm이다.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제공〉

초정밀 마이크로의 세계

고려불화는 멀리서 보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한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세부 표현을 보았을 때, 비로소 놀라게 된다. 찬란하게 빛나는 경이로움이란! 그래서 일본(고려불화 약 80%이상 소장)에서, 30년에 한 번 꼴로, 고려불화 전시회를 할 때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자들에게 돋보기(작품 관람용 현미경)를 나누어 준다. 이는 고려불화의 진면목이 그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는 일본인 학예사의 배려이다.

즉, 디테일을 보아야 고려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 유리에 현미경을 대고 작품의 세부를 확대해 보는 순간, 발걸음은 멈춘다. 전시를 보려고 온 사람들의 줄이 도무지 줄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고려불화의 세부 묘사를 확대경으로 당겨보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는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관람자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넋 놓게 만들어 마냥 그 앞에 붙들어 두는 작품. 이런 힘을 가진 명작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런 명작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려불화이다.

고려불화의 핵심, '청정(淸淨)'

그러면, 실제 작품의 디테일을 보도록 하자. 과연, 현미경을 통해 본 그 장면은 어떤 것인가. 고려불화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를 소개한다.〈그림①〉 본래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압도하는 그 크기와 정교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화제작이다.

고려 수월관음의 상반신을 보면, 먼저 둥글고 풍만한 얼굴과 몸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살의 육신은 온통 금빛이다. 고려불화는 부처나 보살의 육신을 채색할 때, 배채법(背彩法)을 쓴다. 배채법이란 비단 바탕의 뒷면에서 색을 칠하여 색감이 은은하게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효과와 부드러운 농도를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불화의 핵심인 '채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채도란 색감의 맑은 정도, 투명함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청정(淸淨)'과 직결된다. 몸체를 두르고 있는 옷(天衣)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는 무수한 영락 장식들의 아롱지며 장엄되었다. 또 그 위로는 사라(紗羅, 매우 얇아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숄)가 머리의 꼭대기에서부터 발 치 아래까지 덮어 유려하게 흐른다. 물론 사라 위에도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어 있다. 이렇듯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수 겹의 색깔과 선들의 레이어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데도, 탁하지 않다.

파도치는 화려함, 깨달음의 세계

이토록 많은 색과 선을 입혔는데도, 비단 바탕의 촘촘한 씨줄 날줄이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투명하다. 신기하게도 겹치면 겹칠수록 그 청정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래서 현 시대에 있어, 고려불화 재현의 성공 여부는 그 '청정함'에 있다. 어둡거나 탁하면 고려불화라고 할 수 없겠다. 다음으로, 수월관음의 보관(寶冠, 보살의 머리에 쓰는 보배로 장식한 관)의 한 세부 장면〈그림②〉을 보도록 하자. 매우 복잡한 문양들이 보이지만, 마치 그림 뒤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환희롭다. 금선과 붉은 색 · 파란 색 ·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그것을 덮으면서 우아함이 더해졌다. 투명 사라는 너무 화려할 수 있는 디테일을 더욱 섬세하고 또 세련되게 만든다. 보관의 자색 바탕에는 금니(金泥)로 S자 넝쿨 문양이 뻗어나가며 원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꽃이 피었다. 금니란, 미세한 순금 가루를 아교와 섞은 안료이다. 봉황이 찬란한 금빛 날개를 펴고 거대한 연화좌가 피어나며 여의주의 구슬들로 장엄된다. 그 위를 거미줄로 짠 그물과도 같은 투명 사라가 살포시 덮고 있다. 인드라망(帝網, 제석천의 망)과도 같은 사라 위에는 구름과 같은 서기(瑞氣)와 금빛 봉황이 흐른다.

'법계 연기'로 녹아들다

수월관음의 몸체에 그려진 황홀한 마이크로의 세계. 이 풍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희심 나는 장엄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마이크로(초정밀)가 매크로(초대형)의 세계로 직결됨을 알게 된다. 수월관음은 한 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운이 좋아 깨달음의 세계를 얼핏 보았을 때,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 안팎으로, 미립자의 세계에서 저 중중무진 우주의 세계까지. 업장의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가 된 바탕의 세계. 여여(如如)한 바탕자리에서 보신(報身)의 에너지가 일대연기(一大緣起)하고 있다. 번뇌의 업장이 사라지면 열리는 청정한 세계. '나'라고도 할 것이 없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가 일체로 일체가 하나로, 중중무진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 다채로운 생멸(生滅)의 파노라마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진리는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었다.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는

현재 작품의 크기는 높이 429.5cm, 폭 254.2cm이지만, 1812년 이노우타다타카(伊能忠敬)가 가가미진자(鏡神社)를 방문했을 때, 당시 작품과 함께 남아있던 기록에 의하면 작품 본래 크기는 높이 약 545.4cm, 폭 272.7cm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구의 폭까지 고려한다면, 약 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불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작은 한중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안양 수리산 **용 화 사**

주 지 태 명 혜 우 신도회장 **송 창 록**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우세요.

천도는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용화 미륵부처님만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영가가 전생에 살아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걸 천도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해야만이 죽은 영가가 다시 윤회의 길로 다시 이생에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 소중한 말이니 불자들은 뼈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어서 천년에 한번 몸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받겠느냐? 전부다 죽으면 다 귀신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천도라는 것은 염불로 하는게 아니라 · 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그 도력이란 게 무엇이냐?
즉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부처님이 방광을 안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 유튜브 불교방송 용화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